

# 기아차·금호타이어 '고용세습' 언제까지

###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협약 회사측 삭제 요구 불구 노조 반대... 청년 취업기회 막아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노사 단체협약의 그릇된 관행임에도,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적지 않다.

◇올해도 역시나=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도 회사측의 '고용 세습' 조항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노사는 9차례 본교섭을 거쳐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250% 격려금 280만원 ▲재

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에 합의했다. 이 같은 잠정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회사측이 요구한 장기근속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채용 특혜 폐지 안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 노조는 단체협약(27조 1항)에 '회사는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는 불법 고용 세습 조항으로, 고용노동부가 위법한 협약 내용에 대한 시정을 권

고했음에도 노조가 반발하면서 여태껏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측도 매년 임·단협 과정에서 철회를 제의하고 있지만 노조가 거부 방침을 고수하면서 수정하지 못했고 올해도 노조의 반발에 또 다시 물러섰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3일부터 '2018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얼마? 금호타이어도 채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규정할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위반한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다.

금호타이어 '단체협약'(23조)에는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 결정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정년 퇴직자가 요청하면 공개 채용에서도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사실상

'일자리 대물림'이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사측도 지난 2016년 임·단협 과정에서 협약의 위법성을 감안, 수정을 제의했지만 당시 노조측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면서 달라지지 않았다.

금호타이어는 올해도 10월 단체협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노조는 오는 7일까지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조합원 권익을 내세워 관련 협약 수정에 부정적 입장이라 올해 '고용세습' 조항이 바뀔지 주목된다.

한편,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기업은 지난 1분기(1~3월) 기준으로 현대차·기아차·금호타이어 등 29곳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2315.72 (+8.69) | ↓ 금리(국고채 3년) 1.92 (-0.01) |
| ↑ 코스닥 827.27 (+10.43) | ↑ 환율(USD) 1114.90 (+4.60) |



### 하이트진로 광주사랑기금 조성 협약식

#### 3억 모금 독거노인 등 지원

하이트진로(주) (대표 김인규)는 4일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하이트진로 광주사랑기금 조성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성동욱 하이트진로 호남권역 본부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상원회장, 이상도 사무처장, 황인숙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사랑기금 조성 사업'은 하이트진로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기 조성된 금 모금액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광주사랑기금 조성 협약식은 하이트진로가 이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트 엑스트라 골드와 잠이슬 1병당 1원씩 적립해

모금액 3억원 달성시 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조성된 모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복지지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성동욱 본부장은 "이지역을 기반으로 한 하이트진로가 광주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뜻있는 사업을 위해 노력했으며, 광주가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이트진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가 기부한 광주사랑기금은 이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지원을 비롯해 결식아동 지원,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의 월등 난방비 등 사회 곳곳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연체등록 예정일·불이익

#### 금융사, 채무자에 미리 알려야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자'로 등록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경우에 따라선 대출이 거절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를 등록·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자로 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하고, 3개월이 지나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등록한다.

가령 이날(9월 4일)까지 약정된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경우 이튿날인 5일부터 연체가 발생한다. 단기연체자 등록은 주말을 제외하고 5영업일이 지난 이날 12일에 이뤄진다. 12월 5일이 되면 장기연체자로 등록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기연체 등록 전, 그리고 장기연체 등록 전 채무자에게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안내토록 했다.

연체정보가 일단 등록되고 나서 돈을 갚아도 일정 기간 정보가 남아 개인신용평가에 쓰인다. 현재 CB들은 단기연체정보를 3년간 활용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지만, 신용등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여전히다.

결국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연체금 상환을 유도하는 취지다. 등록 전 돈을 갚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4일 오전 광산구 더불어락광산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더불어락광산구복지관서 배식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4일 오전 광산구 운남동에 위치한 더불어락광산구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30여명의 봉사단원들은 식사 조리 준비와 배식지원을 통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떡

과 부채를 선물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전용점포와 무더위쉼터 운영, 건강식 배식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광주·전남의 대표 은행으로서 각계각층에 꼭 필요한 나눔활동을 전개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소폭 올라

경기 침체에도 광주와 전남 소비자물가는 전달에 비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8로 7월과 비교해 0.2% 올랐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1.2% 상승했다.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7로 7월 대비 0.4%, 전년 8월 대비 1.4% 각각 올

### "일회용품 규제 실효성 높려면 과태료 등 적극 추진"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인·과태료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엔 블라인드가 스타벅스 등 매장 근무자 615명을 포함한 직장인 12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음료 매장 근무자 2명 중 1명(58%)은 일회용품 규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식음료 매장 근무자들은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손님에게 과태료 부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6%에 달했다. 현행 법은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매장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매장 근무자들은 일회용품 규제가 본격 실시된 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과 관련, 테이크아웃 한다고 해놓고 매

장에서 먹고 가는 고객(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설거지 등 늘어난 일거리(38%)도 뒤를 이었다.

매장 근무자들은 또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위한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일회용품 보증금 환급제(9%) ▲텀블러 사용시 할인(7%) ▲적극적인 정책 홍보(2%)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음료 매장 근무 경험이 없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텀블러 사용시 할인(33%) ▲손님에게 과태료 부과(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일회용품 규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에 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2~3년만 가는 방수?

##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펜션건물 맞춤형 방수 시공 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